

> 만 남

사공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

대담: 전홍택 KDI 연구위원 · 경제정보센터 소장

때: 2008년 1월 15일 낮 3시

곳: 사공일 위원장 집무실

“경쟁력강화특위, 상설기구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에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따로 만든 건 전례가 없는 일로 안다. 특위를 구성한 배경과 역할을 말해 달라.

미국에서 1988년 부시 대통령 때 비슷한 조직이 만들어진 적이 있고, 레이건 대통령 때 민간기구로 생긴 적은 있지만 정권 인수 인계 단계부터 이런 조직이 만들어진 건 처음이다. 국민들이 이 명박 당선인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대통령’ 이 되어달라는 것이고 인수위에 특위를 설치한 것은 거기건 대한 화답으로



볼 수 있다. 경제를 살리려면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게 최우선이다. 경쟁력강화특위를 인수위와 함께 출범시킨 것만 봐도 새 정부의 국정우선순위를 알 수 있지 않나.

각 태스크포스(TF)팀은 어떤 일을 하나? 새 정부 출범 이후 특위의 기능은 어떻게 변화할까?

특위 안에는 투자유치TF, 정부혁신·규제개혁TF, 기후변화·에너지TF, 한반도대운하TF, 새만금TF, 과학비즈니스벨트TF 등 여섯 개의 TF가 있다. 이 사업들은 새 정부 들어서도 계속될



1940년 경북 군위 생
 서울대 상대, 미 UCLA 박사
 1973~1982년 KDI 연구위원, 재정금융실장, 부원장
 1983년 산업연구원장
 1983~1987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1987~1988년 재무부 장관
 1993년~ 현재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사진: 이찬원

중요한 사업이다. 이제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공공부문개혁, 규제개혁, 공기업 개혁에 관한 일들을 할 것이다. 이 모두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 아니겠나? 경쟁력 강화위원회는 청와대 직속기구로 존속돼 이 사업들이 이끌게 될 것이다.

공동위원장인 ‘데이비드 엘든’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는 특위에 서 어떤 역할을 하나?

엘든 위원장은 국제적인 금융인이다. HSBC 회장을 지냈고, 현

재는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이사장이다. 당선인이 서울시장시절에 서울국제경제자문단 회장(2002~2006년)으로 활약한 인연이 있다. 그래서 당선인과 당선인의 경제정책 방향을 잘 아는 분이다. 국내에 상주하진 않지만 해외 금융·기업인에게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홍보하고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두바이에 대해선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다. 두바이가 우리의 새로운 성장모델인가?

규제개혁, 노사관계 선진화, 법치 존중, 그리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것도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며 투자가 늘어나면 성장잠재력도 그만큼 올라갈 것이다.

두바이는 백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린 곳이다. 두바이 모델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도긴 힘들겠지만 그곳의 경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은 확실하다.

기후변화협약은 나라경제 2월호도 특집으로 다루는 중요 이슈다. 기후 변화 TF팀에서 협약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나?

기후변화문제는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다. 특위의 기후변화TF팀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좀 소홀했던 이 문제를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하고 챙겨나갈 것이다.

대운하 건설에 대해 여론은 벌써부터 양분되는 조짐이다. 대운하TF팀을 거느린 수장으로서 운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경제성, 환경성, 기회비용 등 시작 전에 미리 따져볼 일이 적 많은 것 같다.

대운하에 대해 일부 회의적 시각을 알고 있다. 이 사업은 국민들의 중지를 모으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시행할 것이다. 사실 나도 처음에는 이 사업에 관해 잘 몰랐던 부분이 많았다. '운하' 라면 파나마운하처럼 맨 땅을 파서 물길을 만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한반도 대운하는 있는 물길을 연결하고 준설하는 사업이다. 운하 전체 길이는 540km, 한강 200km, 낙동강 300km, 새로 만드는 건 40km에 불과하다. 그래서 '한반도 물길 잇기' 라고 표현하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다. 이 사업의 대부분이 준설이다 보니 수질오염도 개선되고 국토균형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친환경적이고 문화재 보전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보고받고 있다.



사진 · 이진원

당선인 임기 동안 연평균 7% 경제성장을 말했다. 쉽지 않은 수치인데 가능하다고 예견하는 근거가 있나?

앞으로 연평균 7% 성장하면 10년 뒤에는 국민소득이 두 배(4만 달러)가 되고 우리나라가 G7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이른바 '747공약'이다. 경제성장잠재력은 노동투입, 자본투입, 경제효율성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우리 상황은 인구 노령화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노동투입은 한계가 있다. 자본투입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새 정부가 주력할 것이 바로 투자여건 개선이다. 규제개혁, 노사관계 선진화, 법치 존중, 그리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등도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 투자가 늘어나면 성장잠재력도 그만큼 올라갈 것이다.



지난 1월 1일 이명박 당선인과 이경숙 인수위원장,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공동위원장이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지난해 KDI에서도 지적했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법률 준수 면에서 끝에서 세 번째인데 이를 OECD 평균만큼만 올려도 성장률을 1% 정도 올릴 수 있다. 이런 각종 제도개선과 경쟁의 촉진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 최대한 발휘된다면 우리경제의 효율성은 추가로 올라가 성장잠재력이 제고될 것 아닌가? 이런 것을 다 합하면 성장잠재력을 7% 수준까지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새 정부가 친 기업적 정부가 될 것임은 당선인도 밝힌 바 있다. 출총제 폐지 등 친 기업정책(이른바 'business friendly')들이 과거 재벌 폐해를 다시 가져올 염려는 없을까?

이제 곧 당선인이 노조대표도 만나고 근로자들도 만날 계획이다. 당선인이 기업인을 먼저 만난 이유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인들의 투자에 호의 등을 듣겠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는 'business friendly' 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labor friendly' 라고 봐야 한다. 재벌문제도 앞으로는 사후적 공정거래 차원에서 다룰 것이다.

당선인과는 어떤 인연인가? 특위 위원장으로 추대된 연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나?

KDI 시절부터 인연이 있었고 경제수석으로 있을 때 더 가깝게 알게 됐다. 경선 이전부터 종종 자문할 기회가 있었다. 당선인이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후 '경제살리기특위' 위원장을 맡았을 때 나는 고문을 맡았다.

옆에서 본 당선인은 어떤 리더인가?

매사에 치밀한 준비와 완벽을 기한다. 일단 결정하면 남다른 추진력을 발휘하지만 저돌적으로 밀고 나갈 거라는 염려는 안해도 좋다. 모두가 하기 힘들다고 한 청계천 복원은 노점상 등 청계천 주변사람들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선인은 그들과 4천 번 이상 만나 인내심 있게 설득했다. 그런 후 그 사업을 성공시켰다. 사회적 통합이 절실한 이때 필요한 리더십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20년 전 개발경제 시대에 잘나가던 관료가 다시 새 정부 경제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 과거의 패러다임을 현재에 적용할 수 있겠나? 자신의 한계는 무엇이고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다른 경제통들과 변별되는 점이 있다면?

재무부장관을 그만두고 정부를 떠난 것이 1988년 12월이다. 이후 IMF 특별고문으로 일했고 미국에서 한국경제에 관한 <Korea in the World Economy>란 책도 쓰면서 공부를 계속했다. 귀국해서 세계경제연구원을 만들어 지난 15년간 공부를 쉬지 않았다. 나에 대한 평가는 그동안 내가 기고한 글들이나 연설집을 참고해 달라.

외모가 상당히 이국적이다. 별명이 있나?

나야늘 '401' 이지. 재무부 시절엔 과천 장관실도 '401' 호였다. (웃음)

오랜 시간 감사하다. 특위의 활동을 기대한다.